

「중소기업 대표단」 일본 파견 결과 보고

2024. 8.

KBIZ 중소기업중앙회

1

출장 개요

□ 기본 개요

- 추진목적
 - 한일 양국 대표 중소기업 단체 간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출장기간 : 2024. 07. 17.(수) ~ 2024. 07. 20.(토)
- 출 장 지 : 일본 도쿄
- 출 장 자
 - (회장단) 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 (실 무) 김철우 실장, 강지철 부부장

□ 일 정

날 짜	주요내용
7.17(수)	[출국] 김포 - 하네다 16:10 - 18:30 (2h 20m, KE2103)
7.18(목)	(13:30) 단체중앙회 업무협약
	(18:00) 친선 교류 만찬
7.19(금)	(12:00)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간담
	(17:00) 현지 기업인과의 간담
7.20(토)	[귀국] 하네다 - 김포, 12:30 - 14:50 (2h 20m, KE2102)

□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 및 친선교류 만찬

- 일 시 : 7. 18(목) 13:30
- 장 소 :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6층)
- 참 석 자
 - 한국 : 회장님,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 일본 :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이사,
오유가와 마사루 상무이사, 타가미 히로미치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확대
 -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정책포럼 합동 개최하는 ‘셔틀교류’ 약속
 - 모리 히로시 회장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초청
 -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간 교류 지원
 - 한국이 강점 갖는 IT,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교류 협력한다면 양국 국익과 중소기업 발전에 큰 도움 될 것
 - 중소기업 정책·정보교환 확대
 - 인력난·경영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사례 공유
- 행사사진



□ 일본 중소기업기본정비기구 간담

- 일 시 : 7. 19(금) 12:00
- 장 소 :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인근
- 참 석 자 : 김철우 통상정책실장, 소마 히로히사 일본 중소기업
기본정비기구 국제교류센터장
- 주요내용 : 한일 중소기업 정책교류 관련 협력 방안 논의
 - 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 통한 민간 ‘서틀경제 교류’ 의의 설명
 - 중소기업 간 협업, 정책 교류 등에 대한 정비기구 차원에 지원 당부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상호 의견 교환하기로 합의

□ 해외민간대사 간담

- 일 시 : 7. 19(금) 17:00
- 장 소 : 일본 도쿄도 신주쿠 인근
- 참 석 자 : 회장님,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전희배·곽근남 해외민간대사
- 주요내용 : 한·일 ‘서틀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민간대사
역할 논의, 민간대사 격려 및 환담
 - 일본 내 한국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교류를 위한 지원 당부
 - 중기중앙회, 단체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일본 해외
민간대사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한일 교류행사 추진 검토
 - 일본 해외민간대사, 중소기업 해외 교류 촉진 우수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

韓·日 300만 중소기업 첫 '셔틀 교류' 나선다

양국 중소기업 대표 회담 협약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중소기업 대표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셔틀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이 아닌 한·일 중소기업계가 정기 교류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2019년 일본의 '하이테크스트' 수출 규제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을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로 개선된 이후, 한·일 중소기업 대표 단체들이 민간 교류도 확대하고자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계는 일본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류를 이따금 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한일 관계가 냉랭해지고,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가 겹치면서 관계가 끊어졌다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만해져 재성상됐다.

이번에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선진 IT(정보 통신 기술)를 전수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강한 일본 중소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의 선진 기업 상속 제도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호 문화를 벤치

마킹하는 등 다양한 협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셔틀 외교의 결과... 224만 일본 중소기업 교류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기 단체 간 인적·기술 교류,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간 교류, 중소기업 인력난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 교환에 나선다는

양국 '셔틀 외교' 민간교류로 확대 년 1회 인적·정보·정책 등 교류 한국 IT, 일본 소부장 기술 전수 일의 선진 기업상속도 벤치마킹

계획이다. 양측은 이와 관련, 정책 포럼을 해마다 1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장은 "한국의 ICT 융합 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등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교류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일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히로시 히로시 회장은 "양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을 해



중기중앙회가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한일 중소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문(왼쪽에서부터 넷째) 중기중앙회장과 일본 측 히로시 히로시(오른쪽에서 셋째) 회장.

보자"고 답했다. 이날 모리 회장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에 방문해 달라는 김 회장의 제안에도 흔쾌히 응했다고 한다.

사실 양 단체는 2008년 협력 MOU를 맺고 이따금 도금, 콘크리트 기술 전수 등 교류를 한 적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MOU는 16년 전 MOU를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일본에 IT 전수하고, 우리는 소부장 배운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설립된 일본 내 법정 단체로, 약 2만7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협회·단체와 협회 산하 중소기업 224만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1962년 설립된 우리 중기중앙회는 937개 협동조합 및 단체가 회원사이고, 산하에 업체 70만개가 조합원으로 있다.

양 단체는 해마다 한 번씩 정책 포럼을 통해 정보 교류와 친목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국은 다양한 ICT 기업이 있고, 초고속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일

본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쓰고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며 "일본 기업과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고, 한국의 최신 IT 업무 기술과 스타트업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을 통해 소부장 제조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 중소기업들은 시계면 시계, 자동차면 자동차, 한 분야만 오랫동안 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전문 기업이 많고, 소부장 분야는 아직 우리가 못 따라가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과의 교류를 늘리면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기업 상속' 관련 제도나,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문화도 일본에서 배우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2008년 '경영 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친족 승계뿐 아니라 사임 전환, 인수·합병, 종업원 승계에도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관계도 선진적이라 한국이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류정 기자

서울경제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A17면 산업

韓·日 중기중앙회 맞손 기업 '소통다리' 놓는다

인적·기술 교류 확대 등 상호협력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는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만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 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노현섭 기자

매일경제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A17면 기업

"공급망 재편 일본과 공동 대응" 한일 중소기업 '셔틀교류' 확대

양국 중기중앙회 업무협약
매년 정책포럼 교차 개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셔틀 교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간 인적·기술 교류 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간 교류 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만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 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둔 곳으로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등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교류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며 "두 나라 중



18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둘째)과 모리 히로시 일본 중기중앙회장(왼쪽 셋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민간 차원의 '셔틀 경제 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은 "양국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하는 실질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을 중심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교류와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민간대사' 제도다. 해외민간대사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트렌드, 현지법인 설립, 사업 노하우 등 현지 사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을 제공해 중소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동은 기자